

접속사 ‘-고’의 중의성: 비과거 시제의 역할을 중심으로

채희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hrchae@hufs.ac.kr

이 발표의 목적은 한국어 ‘-고’ “등위문”에서의 시제 관련 현상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가설은 접속사 ‘-고’가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중의적이며 과거 시제 표지 ‘-았/었’과 비과거 시제 표지 ‘-Ø’가 굴절접사라는 것이다. 한국어 시제 표지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적 접근법에서는 단어 내부 요소인 굴절접사로 보고 있지만, 통사적 접근법에서는 음운론적으로는 의존적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독립적인 “접어”로 보고 있다. 영어와 같이 머리어인 동사가 보충어 앞에 나오는 언어에서는 ‘-ed’와 같은 시제 표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동사의 굴절접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이 동사가 보충어 뒤에 나오는 언어에서는 시제 표지가 동사와 결합하는 굴절접사인지 동사구와 결합하는 접어인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발표에서 우리는 한국어 시제 표지는 순수한 굴절접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제 관련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는 ‘정희는 춤을 추고 영수는 노래를 불렀다’와 같이 시제 표지가 뒷 절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등위문으로 분석하는 이런 문장에서조차 뒷 절에만 나타나는 시제가 앞 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제 표지의 형태-통사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80년대 말부터 이런 문장의 앞 절은 (등위절이 아니라) 종속절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Kang 1988, Yi 1994, Kim 1995), 90년대 중반부터는 앞 절이 등위절과 종속절로 중의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Cho 1995, 2005; Yoon 1997).

우리는 위 문장의 앞 절이 등위절과 종속절로 중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왜 그런 중의성이 생기며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의성은 두 가지 독립적인 현상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불완전하다. 중의성이 생기는 첫째 원인은 우리말의 비과거 시제 표지는 (‘-ㄴ/는’이 아니라) ‘-Ø’이며 시제 표지가 순수한 굴절접사라는 것이다. 둘째 원인은 접속사 ‘-고’가 등위접속 기능을 하는 것과 종속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뒷 절이 “정형 절(finite clauses)”일 경우, 등위절과 종속절의 차이는 전자는 보이지 않는 현재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정형 절이며 후자는 시제 표지가 없는 비정형 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전형적으로 종속접속의 기능을 하는 ‘-고’는 시제 표지가 없는 동사 형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 ‘정희는 동생을 업-고/*업었-고 달렸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 앞 절이 등위절일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가진 현재의 사건을 나타내며 종속절일 경우에는 시제 표지가 없으며 관련 사건의 시간은 뒤의 주절에 의해 과거로 결정된다. 우리의 분석이 옳다면, 등위문의 등위절은 모두 각자의 시제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뒷 절의 시제 표지가 앞 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즉, 시제 표지가 등위구문 전체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접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제 표지를 굴절접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 도입

- (1) (접사에 비해) 접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채희락 2006)
- 가. 선행 요소와의 결합에서 생산성이 높다.
 - 나. 결합하는 선행 요소는 주로 구나 절 단위가 된다.
 - 다. 선행 요소가 단독으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 (2) 시제 표지 '-았/었'의 형태-통사적 지위:
- 가. [정희는 춤을 추고 영수는 노래를 불]-렀-다.
 - 나. "(1나)에 따르면 시제 표지 '-았/었'도 접어라야 한다."
등위 구조는 확실히 구 단위이기 때문.
- (3) 시제 표지가 과연 구/절 단위와 결합할 수 있는가?
(2가)와 같은 예문이 시제 표지가 구/절 단위와 결합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II. "등위문" 분석: 선행 연구

- (4) (2가)와 같은 문장에 대한 분석:
- 가. 등위절로 이어진 등위문: 전통적 분석.
 - 나. VP 등위문, 시제 표지는 접어: GB 계통 (cf. Yoon 1996: 1107)
 - 다. 선행절을 부가절/종속절로 분석: Kang (1988), Yi (1994), Kim (1995), Chae & No (1998) 강범모 (2001)
 - 라. "Head-Conjunct" structure ("non-symmetrical coordination"): Choi (1999)
 - 마. 선행절이 등위절과 부가절로 중의적임: Cho (1995, 2005), Yoon (1997) (cf. Yoon 1996, Chung 2003, 2005).
- (5) 부가어 분석:
- 가. Kang (1988: 111, 280), Yi (1994), Chae & No (1998), 강범모 (2001: 69): (시제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선행 절을 부가절로 봄.
 - 나. Kim (1995): 모든 비정형 (non-finite, tenseless) 선행 절을 부가절로 봄.
- (6) 부가어 분석의 증거:
- 가. (2가)와 같은 문장에서의 앞 절의 시제 해석 (과거로 해석되는 경우).
 - 나. (어휘주의적 입장) 시제 표지는 접어가 아니라 굴절접사임.
 - 다. 무엇을 존이 [[책을 읽고] [e 먹었니]]?
 - 라. 존이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 John didn't eat his meal and he didn't clean up the dishes.)
cf. 부정어가 뒷 절에만 영향을 끼칠 때는 부가어 분석의 증거가 되지만 실제로는 등위절 전체가 부정될 수도 있음 (cf. (21))
- (7) 부가어 분석의 문제점:
- 가. 왜 한국어에는 (비정형) VP 등위문만 없는가? (Cho 2005: 42)
 - 나. 다음과 같은 문장의 앞 절이 부가절 의미를 가지는가?
[철수는 지금 밥을 먹고] [영희는 아까 빵을 먹었다].
 - 다. 다음과 같은 문장의 앞 절이 대과거의 의미를 가지는가?

- 철수가 밥을 먹었고 영희가 빵을 먹었다. (Chae & No 1998: 94)
- 라. (비정형) VP 등위문이 존재함 (Yoon 1997: 15-):
 치환성, 반복성, extraction 가능성, 부정의 범위 등의 증거 제시.
- 마. *무엇을 존이 [[책을 읽었고] [e 먹었니]]? (cf. (6다))
- 바. 존이 사과를 좋아 하고 오렌지를 싫어 하지 않았다. (cf. (6라))
 (= It's not that John liked apples and hated oranges.)

(8) Cho (1995, 2005: 36) (cf. Yoon 1997: 15):

- 가. Non-tensed phrases are either conjuncts or adjuncts.
 나. 'V-고' marks either a conjunct or an adjunct of a "sequential" reading ('and-then (after),' 'and as a result (cause & effect)' or 'and nonetheless').
 다. The across-the-board violation is allowed only when the non-final clauses are adjuncts.

(9) 다음 문장 (가)의 앞 절이 과연 시제가 없는가?

- 가. 철수가 [[(지금)은] 영화를 보고] [(아까)는] 책을 읽었다].
- 나. 독립된 사건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시제 표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모두 "non-tensed phrases"로 보는 (8가)의 견해에 문제가 있음.

(10) 등위절과 부가절의 구별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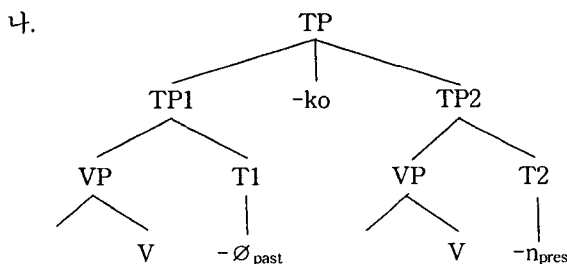
- 가. 문장의 의미에 따라 정해 진다면 순환성의 오류에 빠지게 됨.
 나. '-고'의 유형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왜 [[tensed VP]-고 [tensed VP]] 구조에서는 앞 절이 부가절이 될 수 없는지, 만약 부가절을 이끄는 '-고'는 비정형 동사만 취한다면 (9가)의 앞 절도 부가절이라는 것인지?

(11) Chung (2003, 2005)의 주장:

- 가. Tenseless VPs may produce an asymmetric interpretation for pre-final affixes such as tense and aspect morphemes (p. 549).
 나. Tenseless VPs with asymmetric interpretations are to be analyzed as instances of coordina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in which phonetically null functional elements are postulated in non-final conjuncts (p. 549, p. 552, p. 556).
 다. The conjunct size is a TP or higher projection, rather than a bare VP or verbal constituent (p. 552, p. 556).

(12) Chung (2003: 553, 557)의 분석 예:

가. [모두 (어제) 여행 떠나고] [나만 혼자 (지금) 집을 지킨다].



(13) (12)의 분석 및 그 문제점:

- 가. '-ㄴ/는'을 현재 시제로 분석하고 있음.
- 나. (12가)와 같은 문장에서 앞 절이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통사적으로 처리함.
cf. '모두 여행 떠나고 나만 혼자 집을 지켰다': '떠나고'는 과거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다. 문장 (12가)를 등위문의 예로 들었으나 등위문이 아님. 다음 문장과 치환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음 (즉, '떠나다'와 결합한 시제 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환성을 보여 주지 못함).
[나만 혼자 (지금) 집을 지키고] [모두 (어제) 여행 떠났다].
- 라. "A remaining issue to be pursued in the future is how to retrieve zero functional elements in non-final conjuncts in tenseless VPs, even when no markers are morphologically realized anywhere, not even in the final conjunct. (p. 567)"
cf. "영형 과거 시제 표지" '-∅_{past}'의 문제점: Lee 2004: 611-.

(14) Lee (2004: 616)의 주장:

- 가. When the conjunct contains a null nonpast tense morpheme, this is an example of real TP coordination.
- 나. When the conjunct is c-commanded by a tense morpheme that has scope over the entire coordination, ... the non-final conjunct is ... a VP.
- 다. When there is a temporal adverb in the conjunct, the conjunct is ... a VP.

(15) Lee (2004)의 문제점:

- 가. 어떤 경우에 앞 절이 비과거 시제 '-∅'를 가지고 있느냐?
- 나. (14)의 세 가지 기준에 동질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다.
- 다. 기준 (14다)와 관련하여, 앞 절에 시간 부사와 시제 표지 '-았/었'이 모두 있을 때는?

III. 새로운 시도

(16) 한국어의 현재 시제는 '-ㄴ/는'이 아니라 '-∅'이다.

- 가. ... Kang (1988: 106, 110), 김성화 (1990), 서정수 (1996) 등.
- 나. 만약 현재 시제 표지라면 다음 표현들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ㄴ-습니다, *가-ㄴ-아, *가-ㄴ-니, *가-ㄴ-자, ...
*먹-는-습니다, *먹-는-어, *먹-는-니, *먹-는-자, ...
- 다. 등위 접속사 '-고' 앞에 왜 과거 시제 표지밖에 올 수 없는가?
*밥을 먹-는-고 (cf. 밥을 먹-었-고)

(17) '-고'의 중의성 (Cho 1995, 2005; cf. Kang 1988: 280-, 강범모 2001: 70-):

- 가.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이는 대등적 연결 어미," "동사의 어간 뒤에 쓰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연세 한국어 사전)
- 나. 종속 접속사: 동사의 어간에만 붙고 비정형 절을 취함.
정희는 동생을 업-고/*업었-고 달렸다. 영수는 언제나 놀-고/*놀았-고 먹는다.

(18) (16-17)의 결과로 문장 (2가)는 중의적임:

- 가. [정희는 춤을 추-∅-고] [영수는 노래를 불렀다].
앞 절이 등위절이며, 시간은 현재 시제에 의해 현재를 나타냄.

나. [정희는 춤을 추-고] [영수는 노래를 불렀다].
 앞 절이 부가절이며, 시간은 뒷 절의 시제에 의해 과거를 나타냄.

(19) 종속절과 대조 표지 '-은/는':

가. (18나)에서처럼 부가절/종속절과 주절의 요소가 대조 표지로 서로 “대비”가 될 수 있는가?
 나. 대조 표지에 의한 대비는 등위적인 속성이 강하지만 종속절-주절 구성에서도 가능하다.
 [정희는 [키가 커서]/[키가 크기 때문에]] 영수는 어울리지 않는다.

(20) 등위절과 부가절의 구별:

가. 등위절: 뒷 절이 정형 절이면 앞 절도 정형 절, 뒷 절이 비정형 절일 때는 앞 절도 비정형 절 --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절이라야 함.
 나. 종속절: 비정형 절만 종속절이 됨 (cf. (17나)).

(21) 문장 (6라)의 분석: 철수가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지] 않았다.

가. ‘밥을 먹-’ 부분이 비정형 등위절과 부가절로 중의적 (-지’형은 비정형 절을 요구함).
 나. 비정형 등위절일 때: [] 부분 전체가 부정됨.
 다. 부가절일 때: 주절인 ‘그릇을 치우-’ 부분이 부정됨.

(22) 다음 문장의 분석 (cf. Cho 1995: 158): *빵을 철수가 [[밥을 좋아 하고] [e 싫어 했다]].

가. 앞 절이 정형 등위절일 때는 등위접속 제약을 어김.
 나. 앞 절이 부가절일 때는 “sequentiality constraint”를 어김 (cf. (8나)).
 → extraction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 절이 부가절이며 동시에 이 의미/화용적 제약도 준수해야 함.

(23) 문장 (12가)의 분석: [모두 (어제) 여행 떠나고] [나만 혼자 (지금) 집을 지킨다].

가. 앞 절이 등위절일 때는 현재 시제 표지 ‘-∅’에 의해 현재 시간을 나타냄 (‘어제’가 나타날 때는 앞 절이 등위절일 가능성이 사라짐).
 나. 앞 절이 부가절일 때는 시제 표지가 없으며 부가절과 주절간의 의미/화용적 관계에 의해 부가절이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cf. 모두 여행 떠나고 나만 혼자 집을 지켰다.
 cf. 철수는 물고기를 잡아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먹었다.

IV. 결론

(24)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 표지는 (-ㄴ/는’이 아니라) ‘-∅’이며 접속사 ‘-고’는 등위접속 기능을 하는 것과 종속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의적임.

(25) 시제 표지 ‘-았/었’의 형태-통사적 지위: 굴절접사

가. 가장 큰 반증 자료: 시제 표지가 등위 구조 전체를 영역으로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나. 등위문에서 뒷 절의 시제 표지는 앞 절과 무관함이 밝혀졌음.
 다. (후치사, 한정사 등과는 달리) 시제 표지가 굴절접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전혀 없음.

V. 참고 문헌

- 강범모 (2001) 범주문법: 한국어의 형태론, 통사론, 타입논리적 의미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성화 (1990) 현대 국어의 상 연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서정수 (1996) 국어 문법, 수정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원.
- 채희락 (2005) "한국어 소단위어: 동사류 소단위어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41.3, 569-604.
- 채희락 (2006) "한국어 품사의 재정립: 접어류를 포함하여," *한국언어학회 2006년 겨울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집*, 122-131.
- Chae, Hee-Rahk and Yongkyoon No (1998) "A Survey of Morphological Issues in Korean: Focusing on Syntactically Relevant Phenomena," *Korean Linguistics* 9, 65-109.
- Choi, Incheol (1999) "Nominalization and Verbal Coordination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II, 295-309.
- Cho, Sae-Youn (1995) "Untensed Phrases in Korean Verbal Coordinatio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 157-172.
- Cho, Sae-Youn (2005) "Non-tensed VP Coordination in Korean: Structure and Meaning," *Language and Information* 9.1, 35-49.
- Chung, Daeho (2003) "On Conjunct Size in Korean *-ko* Coordination," *Japanese/Korean Linguistics* 11, 471-484.
- Chung, Daeho (2005) "What Does Bare *-ko* Coordination Say about Post-verbal Morphology in Korean?," *Lingua* 115, 549-568.
- Kang, Beom-mo (1988) *Functional Inheritance,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Brown Univ.
- Kim, Jong-Bok (1995) *The Grammar of Negation: A Lexicalist, Constraint-based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
- Lee, Wooseung (2004) "Tense-shared Coordination Constructions in Korean: Implications for Morpho-syntax,"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 609-620.
- Yi, Eun-Young (1994). "Adjunction, Coordination, and Their Theoretical Consequences,"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Univ. of London.
- Yoon, James H-S (1997) "Coordination (A)symmetri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I, 3-32.
- Yoon, Jeong-Me (1996) "Verbal Coordination in Korean and English and the Checking Approach to Verbal Morphology,"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1.4, 1105-1135.